

시키는 것을 잘한다는 것은.

저는 소위 줄도 뺀도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는 특출한 장기도 좋은 스펙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키는 건 뭐든지 잘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직장 상사가 지시하는 건 뭐든지 잘하는 직원이었습니다.

호텔리어라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고, 마침내 모두가 부러워하는 진정한 호텔리어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생각합니다. 업장에 배치된 첫날 선임 간부가 제게 물었습니다.

“야, 넌 잘하는 게 뭐야?”

“주특기는 없지만 시키는 일은 뭐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사업 계획은 네가 작성해 봐.”

‘업무 매뉴얼 만들어 봐’, ‘나 대신 야근 좀 해’ 등의 지시부터 시작해서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이번 회식 때는 네가 장기자랑 좀 준비해라’, ‘내가 다음 주에 이사를 하는데 쉬는 날 와서 좀 도와 줘라’, ‘다음 주에 출장을 가는데 우리 집 강아지 밥 좀 챙겨 줘라’ 등등....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기에 앞서 ‘뭐든지 열심히 하자’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에 몇 년을 정말 시키는 대로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저는 어느덧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으로 각인되었고, 이는 제가 점점 중요한 일들을 맡는 원천이 되었으며, 동기들보다 앞서 승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가정은 뒤로하고 열정과 애사심으로 뭉친 자존감 강한 직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습관이 되어 있던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자'는 저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팀장이 저를 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대리, 이번에 A라는 물품을 구매해야 하는데 내 친구가 이 물품을 납품하니까 여기서 견적 좀 받아서 구매해줘. 100만 원 이하는 비교 견적이 필요 없으니 그냥 견적서만 받아서 바로 처리하면 될 거야.”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몇십만 원짜리 물건 하나 사는데 규정에 어긋난 것도 아니니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또 지시를 받습니다.

“○대리, 이번에는 B라는 물품을 사야 하는데 그때 그 친구한테 견적 좀 받아 봐. 한 200, 300만 원 할 거야.”

“팀장님, 100만 원이 넘으면 비교 견적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 이 금액이 더 높으면 다른 업체에서 구매해야 하는데요.”

“그럼 그 친구한테 가짜 견적서를 보내 달라고 하면 되지. 다 그렇게 하잖아. 내 돈도 아니고 회사돈 쓰는데 몇만 원 아낀다고 누가 상 주냐?”

“아... 네. 일단 알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별문제도 없었고, 한두 번 하다 보니 익숙해졌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다 그렇게 한다고 하니 이런 일이 당연해졌다고 해야 하나. 그냥 팀장이랑 실랑이하기도 싫

고, 괜히 눈 밖에 나면 피곤하니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시키는 것을 아주 잘하는 직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팀장이 내게 그동안 열심히 일했다며 해외 출장을 권합니다.

“○대리, 해외 출장 한 번도 못 가봤지? 그래서 이번에 임원이 △△으로 출장을 가는데 내가 특별히 ○대리를 추천했어.”

“감사합니다, 팀장님.”

“그런데 회사에서 주는 출장비로는 부족하니까 먼저 임원 모시고 갔던 직원한테 방법을 물어봐서 출장비를 많이 만들어 놓아야 할 거야.”

“네?”

“가서 물어보면 자세하게 알려 줄 거야. 해외 출장 가는데 개인 돈을 쓸 수는 없잖아. 부정을 저지르라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다른 회사들도 그렇게 하고, 우리도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던 관행이니까 그렇게 하면 돼.”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출장 규정을 찾아보고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행이라는 핑계를 불모로 삼아 모자란 출장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팀장한테는 참 잘했다고 칭찬까지 받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부끄러움보다는 뿌듯함이 더 컸고, 이는 앞으로 닥쳐올 큰 위기를 스스로 자초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감사의 시작과 동시에 그동안 쌓았던 좋은 이미지와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되었습니다.

감사실에서 출장비 과다 지출에 대한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고, 저 역시 감사 대상자가 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실 직원의 지적에 저는 똑같은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위에서 시키는데 어떻게 못 한다고 합니까? 저 혼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해왔던 관행을 그대로 답습했을 뿐입니다. 사익을 추구한 것도 아니고, 제가 아니라 누구든 제 입장이라면 똑같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결국 저의 잘못은 회사의 징계로 이어졌고, 많은 직원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깨끗한 척, 열심히 하는 척하더니 뒤에서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녔네’라고 뒷담화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위로 아닌 위로도 받았습니다. ‘회사생활 열심히 하지 마’, ‘열심히 해 봤자 너처럼 징계나 받지’, ‘우리 회사에서는 절대 열심히 할 필요 없어’, ‘문제 생기면 실무자만 다쳐’ 등등 온통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회사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했으며 시키는 것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어떻게 해서든 성사시켰고, 누구보다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저 역시 배신감, 억울함, 회사에 대한 반감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이야기, 나의 심금을 울리다

그날 저녁 아내와 술 한잔하면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다른 길을 보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던 제게 아내의 이야기는 삶에 반전을 준 보약과도 같았습니다.

아내는 먼저 제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는 오랜 친구로서 위로와 공감을 주었습니다.

“여보, 지금 억울하지? 당신이 평생 함께할 사람은 지금 옆에 있는 나랑 우리 애들이고, 우리가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까 힘내서 다시 열심히 살아 보자.”

그리고 그다음 이야기에 저는 제대로 한 대 맞은 듯했습니다.

“잘못된 관행은 썩기 마련이고 누군가는 그 썩은 관행을 도려내야 하는데, 나는 당신이 그 일을 한 것 같아서 무척 자랑스럽고 뿌듯해. 당신으로 인해서 규정도 올바르게 바뀔 것이고, 회사가 보다 더 청렴해질 테니까. 비록 지금은 아프고 억울하겠지만 후에는 회사의 역사가 당신이랑 함께할 거라 생각해. 나는 당신이 평소에 늘 약자 편이고, 남을 위해 봉사하고, 좋은 아들이자 아빠, 남편이라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이번 일을 타산지석 삼아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지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지난 일은 다 잊자.”

“그래, 앞으로 또 같은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누가 되었든 당당하게 말할게. 아니, 확~신고해 버릴 거야.”

드디어 반격할 기회가 왔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실장이 저를 부르며 말합니다.

“○과장, 예전에 고가의 판촉물을 어디에 썼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데, 혹시 처리할 방법이 있을까?”

“당시에 쓴 판촉물 관리대장이나, 만약 누구한테 주었다면 인수인계서 같은 게 있지 않나요?”

“그게 좀 애매해서 그런데, 해외 출장 갔을 때 외국인한테 전달했다고 하고 그 사람한테 미리 입을 맞춰 놓으면 될 것 같은데....”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 것 같은데, 숨기기 시작하면 계속 일이 커질 겁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공개하고 다음부터 철저히 관리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누가 그걸 몰라서 그러나? 괜히 문제되면 신상에 좋을 것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 예전에는 시키는 대로 잘하더니 이제 많이 컸나 보네. ○과장 그렇게 안 봤는데 직장 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실장님, 고가의 물건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건 관리 소홀이고요, 공직자로서 ‘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도 위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한테 부당 지시하시는 것도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제가 그렇게 겪고 우리 회사가 한 단계 성장했듯 실장님도 자꾸 덮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후배들한테 정직하고 떳떳한 선배로 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 실장님과는 서먹서먹해졌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저는 스스로 참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앞으로 같은 일이 생겼을 때 이처럼 행동하는 것은 물론, 후배에게도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래도 안 된다면 공익 제보를 적극 활용하라고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시키는 걸 잘한다는 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회사에 몸담은 수년 동안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예전에는 가능했던 일들이 요즘은 청탁금지법 등 청렴이라는 명목 아래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시킨다’라는 말조차 잘못된 것으로 여겨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간다면,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기회 아래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평등한 사회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 시키는 걸 잘해서 이익을

얻는 세상이 아닌, 올바르게 지시하고 정의롭게 끌고 나가는 세상, 아닐 때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세상. 이를 품을 수 있는 제도가 잘 뒷받침될 때 회사뿐만 아니
라 우리 사회가 더욱 참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유령 인간

학창 시절 나는 학교 폭력 피해자였다. 청소년기의 미성숙한 존재들이 내뿜는 왕성한 에너지는 겉으로 봐서는 생기 넘치고 싱그럽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적이 된 입장에서 본다면 그 열기는 맹수처럼 잔혹했고, 과시적이었다. 또 여럿이 모일수록 힘의 동원력은 더욱 강력해졌다. 설부른 반항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것을 알아챌 정도의 눈치는 있었다. 돈을 원하면 어머니께 문제집을 산다고 하고 받은 용돈을 갖다 바쳤고, 학교라는 무료하기 짝이 없는 일상에 시비 걸 상대가 필요하면 기꺼이 샌드백이 되어 줬다. 착하게 자라야지, 말씀하시던 어른들의 바람처럼 나는 착하고 얌전하게, 일명 '공식 짜질이'의 말은 바 임무를 다한 것이다.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한 대 얻어맞으면 너도 똑같이 한 대 정도는 같기라고. 그게 '공평'이라고. 뺨을 맞고, 옷이 벗겨지고, 쓰레기통 취급을 받을 때마다 어머니의 조언을 떠올렸지만, 거인들의 발길질에 대항하기엔 나는 겁 많고 물렁한 소형 불개미였다. 밤마다 칼을 든 괴물에 쫓기는 악몽을 꿴다. 새로 산 교복 카디건이 또 찢어졌으니 손대지 말아 달라고. 휴대폰 요금이 많이 나오는 탓에 구중이 잦아졌으니 제발 빼앗지 말아 달라고. 푸르텡텡한 멍 자국처럼 내 속도 망가지고 있으니 그만 멈춰 달라고. 소리 없는 아우성은 전달되지 못한 채 부메랑처럼 되돌아와 사춘기 소녀의 멍을 쥐어 잡고 흔들어댔다. 그렇게 나의 학창 시절이 지나갔다. 아니, '견뎌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다.

'불행한 기억 꼬리표'는 주홍 글씨처럼 생채기 안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끈질긴 괴롭힘이었다. 덕분에 나는 성인이 돼서도 '인간 공포증'에 시달렸다. 희망적인 사실은 대학을 갔고, 마땅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빵 코스'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다. 불행은, 면접만 보러 가면 학창 시절 맹수들이 불현듯 출현한다는 점에서 시작됐다. 검은 정장을 입고 답변을 준비하는 내게 거머리처럼 들러붙어 머릿

속을 뒤흔들고, 생병어리로 만들었다. 그리고선 '광속탈락'이라는 패배자 딱지를 선사해 줬다. 면접장을 떠나는 머리채를 움켜잡고, 꼭 다문 입술에 수갑을 채워 사춘기 감옥살이 시절로 다시금 데려갔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다. '사람을 만나지 않는 일'이라는 게 필수 조건처럼 따랐다.

문예창작학과를 전공한 내게는 자기소개서 첨삭 부탁이 종종 들어왔다. 비평에 한해서는 섬세하고 꼼꼼한 면모가 있었던지라 그리 까다로운 일은 아니었다. 의뢰를 받고, 메일로 파일을 전달받고, 검토 후 다시 전달한다. 두세 번의 피드백이 오간다. 소정의 대가를 지불받는다. 대략 이런 코스였다. 나는 점점 분야를 넓혀갔다. 주변의 소개를 받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홍보 글을 올리고, 재능을 판매하는 사이트에 내 존재를 알렸다. 취업준비생 자기소개서, 대학생 리포트, 대학원생 논문, 중고등학생들의 논술문까지. 그야말로 뜻밖의 창조경제였다.

그렇게 나는 첨삭 및 교정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됐다. 직업 만족도에 점수를 매기자면 90점 이상. 직접적인 만남 없이 타인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매력적이었고, 무엇보다 내가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비문을 바로잡고 실용적이고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법, 추상적인 표현을 구체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법, 은유를 글에 자연스럽게 녹이는 법 등. 조연자로서 또 어느 순간에는 벼로서 덩어리 같은 고민을 꺼안고 있는 의뢰인들의 새벽을 지켜 줬다. 퇴고 과정을 겪을수록 더 좋은 글이 탄생하듯이 당신도 치열하게 성장할 거라 말해 줬다. 그러면서 내 족쇄 같은 어린 시절 상처까지도 함께 게워냈다. 내 일을 사랑했고, 자랑스럽게 여겼다.

유혹은 늘 위기의 순간에 구원투수처럼 등장했다. 따뜻한 악수를 건네며 아주 달콤한 계획을 들려줬다. 전(前) 의뢰인에게 연락이 온 건 마감일에 허덕이고 있을 때였다. 독서논술지도사 2급 자격증을 활용해 개인 과외 식으로 독서논술을 지도했던 학생의 어머니였다. 외고 진학을 희망한다는 소식과 함께 꺼낸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러했다.

'외고 진학에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 학업계획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아이가 공부 머리는 있는데 글솜씨가 없다. 추천서는 담임 선생님께서 맡아 주셨다. 나머지를 맡아 줄 수 있겠느냐.'

처음엔 흔쾌히 작성본을 보내면 조언을 덧붙여 드리겠다 대답했다. 노골적이면서 구체적인 요구가 돌아왔다.

'제출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이가 쓰는 법을 몰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면접을 준비해야 한다. 대신 써주셨으면 좋겠다.'

두 배의 비용이 제안으로 들어왔다. 머릿속으로 계산기가 돌아갔다. '손님 가려 받으면 일 끊긴다'라는 자영업계의 암묵적 징크스가 번뜩였다. 소개로 이어질 예비 고객들이 머릿속에서 번호표를 뽑고 있었다. 마음속에 소용돌이가 휘몰아쳤다. 파동은 오랜 시간 방패처럼 쌓아 올린 '신념'이라는 철벽에 망치질을 했다. 세 사람만 입을 다문다면 남들은 알아채기 어려울 정도로만 금이 갔다. 분필 가루 같은 모래 양심이 새어 나가기에 적당한 크기의 틈이었다.

"잠시 생각해 보고 연락 드리겠습니다."

일단 끊긴 휴대폰이 유혹의 손바닥처럼 뜨거워져 있었다. 솔깃한 제안이었다. 또 다른 창조경제의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거기서 거기' 식의 조언하기 업무가 반복되면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고, 끈질긴 피드백과 퇴고 요구에 따라와 주지 않는 상황에 지쳐 있었다. 더 솔직하게는, 수입이 불안정했고 또 적었다. 슬슬 직급을 달게 된 또래들이 경주마를 타고 활주하듯 달릴 때, 나는 시속 10km 속도로 가는 당나귀 위에 탑승해 있었다. 이미 대필업체들은 공공연하게 존재하는 터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일

이러지만 순수한 행복에 뛰어드는 일에 어떠한 고위험이 따르는지, 정답은 없고 무수한 해답만 있는 일에 가산점 없이 평가받는 삶이 얼마나 치열한지, 구구절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데 힘쓰는 것보다 내가 유령이 되는 게 효율적이면서도 생산적인 일이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렵나. 점점 느는 도둑질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정말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되는 것처럼.

그날 저녁 동기 A에게 연락을 했다. 한때 순수문학을 꿈꿨고, 문과생이라는 업보로 바늘구멍 취업문에 튕겨 나뒹굴어진, 내 갈등과 갈등을 이해해 줄 유일한 친구였다. 실은 조언을 핑계 삼아 내 편을 통해 위안을 받으려는 요량으로 건 전화였다. 좋은 기회가 왔다고. 이참에 대필 작가로 활동 분야를 넓힐 수 있는 적절한 계기가 될 거라고. 속내를 내비치자 뜻밖에 격양된 대화가 오갔다.

A- 소설가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책을 내면서 뒤에서는 대필자를 고용한다면 그건 사기 행위다. 그것과 다를 바 없다.

나- 모든 사람에게 글 쓰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 누군가는 배울 수 있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 대신 표현해 줄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 될 거다.

A- 그 관계가 저작자 권리까지 상품화되어 판매되는 경우를 초래한다면? 의뢰인이 대가를 지불하는 순간 창작자 권리를 훔치는 행위다. 대필 작가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

대필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다. 일명 유령작가. 물론 합당한 대가를 지불받은 후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조건으로 글쓰기 능력을 판매한다고 할지라도 실 저작권까지 이양되는 건 아니다. 실 저작자임에도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할 뿐. 나는 사회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력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내가 나의 의뢰인이자 창작자들에게 즐기게 한 이야기가 있다. 모든 창작물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저작권이 발생한다. 그리고 주체는 그 권리 아래 보호 받는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공정하게 작용하여 공생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자식같이 여겨야 한다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향유하려는 권리의식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이제 와서 내가 유령이 되어 그 책임감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의뢰인에게 문자를 보냈다.

'잘 쓴 글도 좋은 글이지만, 진실성 있게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가장 진솔하게 담아낼 수 있는 건 오직 OO이뿐입니다. 좋은 글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냉담한 대답이 돌아왔다.

'선생님이랑 저랑 생각이 다른가 보네요.'

옳고 그름. 선과 악. 세상은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듯 보이지만,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에는 명확한 기준도, 규정이랄 것도 없다. 그렇기에 '이 정도 유리함을 취하는 건 괜찮겠지'라는 개개인의 도의적 책임감에 따라 양심 지정선이 그어진다. 선을 넘어버리는 것은 어쩌면 한순간일지도 모른다. 유령이 아닌 '나'로 살아가는 법을 택했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순수한 행복의 범주 안에 있을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나는 생각한다.

나의 열일곱과 너희들의 열일곱

내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는 교직원의 촌지 문화에 대한 경각심이 사회적으로 높아지던 시기였다. 학교는 그야말로 비상이었다. 지금이야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인해 이런 문제가 없지만, 이때만 해도 '성의 표시'가 당연히 여겨지던 시절이었다. 특히나 촌지 문화가 횡행하던 부모님 세대에서는 '교사 5년 하고 집을 못 사면 바보'라는 말이 있었으니 말이다.

현장 체험이 있는 날이면 반장의 부모님이 선생님의 도시락과 간식을 챙겼고, 스승의 날이면 돈을 걸어 선생님께 선물과 꽃을 드리고 파티를 열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 모두 이런 '관례'에 대해 불만은 없었다. 부담은 있었다. 그러나 그 화살은 부패한 교사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가 끌어안았다.

'우리 집은 왜 가난해서!'

'저 녀석은 뭐 하러 반장에 나가서!'

사실 국공립 학교에 다녔던 어린 나에게는 이런 일이 크게 다가오지는 않았다. 실제로 우리 세대로 오면서 촌지 문화는 점점 사라져가는 추세였다. 돌이켜 보면 이것도 부당한 일이었지 싶은 것들은 있었지만, 큰돈이 오가는 문제는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만 일어났던 일이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의 이런 생각은 사립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곧바로 깨졌다. 고등학교 시절 부반장이 되었는데, 담임 선생님은 나를 교무실로 불러 이번 학부모 참관 수업에 부모님을 모셔 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집은 부모님 두 분 모두 맞벌이를 하셔서 바쁘다고 했지만 담임 선생님은 부모님이 꼭 와야 한다며 강경하게 말씀하셨다. 당시 나는 내 대

학 진학에 대해 상담하려고 그러시나 생각해서 별생각 없이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어머니가 하루 연차를 내고 학교에 오셨다. 그런데 어머니가 학부모 참관 수업을 마치고 집에 와서 내게 해준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반장과 부반장 엄마들을 교장실로 불러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각자 50만 원씩 학부모회장에게 내시면 됩니다. 모인 돈은 학교 관리와 행정에 쓰일 예정입니다.”

이건 시작이었다. 우리는 10반까지 있었으니 1,000만 원을 가져간 것인데, 이것으로도 부족했는지 학교는 각종 행사를 명목으로 돈을 가져갔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내리 반장을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고, 속상한 마음이 들어 어머니께 물었다.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없었어요? 요즘 시대에 이래도 돼?”

“몇 반인지 누구 엄마인지 다 아는데 거기서 어떻게 반대를 하니. 엄마가 그 돈 못 내겠다고 하면 네가 피해를 볼 텐데.”

그렇다. 퇴직하지 않는 한 교사가 바뀌지도 않는 것이 사립 고등학교다. 대학교 입시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일을 크게 만드느니 그깟 50만 원은 그냥 낼 수 있는 돈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집 가정 상황이었고 우리 반 반장은 달랐다. 막내인 나와 달리 반장은 아직 어린 동생들도 있었고 문제집도 마련하기 힘들어 교무실에서 남는 문제집을 받아 오는 형편이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반장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속상해했고 나 또한 공감했다.

반장은 나와 다른 반 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싶어 했으나 결국은 무산됐다. 사실 예견된 일이었다. 이 시기에 선생님의 뜻을 거스르고 싶은 아이들과

학부모는 아무도 없었다. 5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생활기록부에 한 줄이라도 좋은 말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에서 잡음을 만들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학급 임원이 아닌 일반 학우들은 굳이 이 일에 끼고 싶어 하지 않았다. 우리는 모두 학교가 아닌 서로에게 화살을 돌렸다.

“50만 원도 못 내? 그냥 좀 내면 안 돼?”

“너는 호구처럼 내고 살든가.”

돈을 받는 이는 학교인데 우리는 서로를 비겁자와 가난뱅이로 편을 갈라 싸웠다. 승자가 없는 싸움이었다. 그러나 상처를 가장 많이 입은 쪽은 확연히 드러났다. 길어지는 다툼에 지친 학생들은 우리 반에 짜증을 내보였다.

비단 학생들만의 일이 아니었다. 담임 선생님들은 이런 일을 알면서도 입을 다물었다. 차마 교육자로서 돈을 내라고 다그치지도 못했고, 위로부터는 지금껏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선생 반에서만 이런 일이 생기냐며 쓴소리를 들었다.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느꼈다.

‘그냥 좀 내지.’

나는 학창 시절 내내 교대를 지망했으나 이 사건 이후로 진로가 바뀌었다. 교사가 되어 이런 문제에 또다시 직면할 용기가 없었다. 나는 선생님에게 미래의 내 모습을 투영했다.

‘내가 선생님이었다고 해도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을까?’

‘생활기록부 걱정도 아무것도 못 하고 말로만 반장을 응원한다는 나와 임용에 문제가

될까 입을 다무는 선생님이 뭐가 다를까?’

대학 입시가 인생의 전부이던 아이들과 촌지 문화에서 자랐던 학부모들, 기간제 교사였던 담임, 관행대로 하겠다는 학교. 사실상 일대 다수의 싸움이었다. 나 또한 반장의 편을 들면서도 이미 어머니가 돈을 내버린 상태라 돈을 내지 않은 학생은 반장 한 명뿐이었다. 결국, 딸아이의 학교생활을 걱정한 반장의 어머니가 돈을 마련해 오면서 이 일은 끝이 났다.

학교의 부정부패는 우리 모두에게 생채기만 남겼다. 담임 선생님은 권위를 잃었고 반장은 자존심을 잃었으며 친구들은 우정을 잃었다. 반 분위기는 1년 내내 싸늘했다. 얻은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이 돈을 내서 학급 임원들이 특별히 더 좋은 생활기록부를 얻었다거나, 학교생활이 편해졌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학교는 그저 늘 받던 것을 받았을 뿐이다.

그렇게 씩씩한 기억을 가지고 졸업한 지 2년 후 그 일이 거의 잊힐 무렵, 친하게 지냈던 동아리 후배가 모교의 소식을 알려왔다.

“선배, 이번 1학년들 장난 아니에요. 교육청에도 신고하고 국민 신문고에도 알렸대요.” 정확하게는 학교 교칙 중에 학생 인권에 반하는 조항이 있어 신고했는데 감사가 나오자 누군가 돈을 걷는 관행까지 제기하며 일이 커졌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이 문제를 절대 좌시하지 않았다. 일단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관행은 없애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조용히 덮었다고도 전해 주었다.

“저는 반장도 아니었어서 몰랐어요. 선배 때도 돈 걷었어요?”

여기에 내가 무슨 답을 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학교 선생님들의 욕을 시원

하게 했던 듯도 싶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듯도 싶다. 그러나 한 가지는 정확히 기억난다. 얼떨떨했다는 것. 그게 정말 사라졌다고? 그리고 다음 해 9월 즈음에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나는 믿기로 했다. 이제 그 관행은 학생들을 괴롭힐 수 없겠구나, 하고.

내가 사회에 나왔을 때, 내가 '학교'의 입장이 되는 순간들이 생겼다. 관행이고, 하지 않으면 나만 바보가 되는. 그러나 내가 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끝날 악습. 나에게 생기는 이득은 쓸쓸한 정도이지만 상대방에게는 부담스럽고 거절하기 힘든 상황들. 그냥 내가 한 번 고집불통인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지금도 가끔 유혹이 밀려올 때면 그 시절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우유부단한 나를 억지로 들춰낸다. 그 시절 치졸한 괴롭힘이 동반된 부정부패는 예민하고 어렸던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앗아가 버렸고 남은 것은 정의할 수 없는 상실감이다. 그것이 어른들에 대한 신뢰였을지, 내 오랜 꿈이던 교직 생활에 대한 환상이었을지. 혹은 나보다 몇 살은 어린 1학년들이 가져간, 그 시절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권리일지.

아직도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내 안의 열일곱 살은 이런 부분에 있어 매우 단호하다. 유연하게 관행을 받아들일 줄 모르고, 압박해도 무시로 일관하는 고집불통. 그러면 나는 고민하다가도 기꺼이 이 열일곱 살의 손을 들어 준다.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던 열일곱 살은 이제야 웃는다. 그 시절 우리의 눈을 피하던 어른들이 아닌 이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어른이 되는 순간이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도 기본적인 부분들을 지나치고 간다. 어떤 곳에서는 청렴함이 필수적으로, 강박적으로라도 요구되어야 한다. 학교는 아이들의 영혼을 키우는 곳이다. 그렇기에 나는 세상 안에 갇혀 있던 열일곱 살의 나에게 보여 준다.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고, 당장 나 때에 모든 것이 바뀌진 않더라도 참지 않는 어린 학생과 불합리

함을 받아들이고 힘을 보태 주는 어른들이 있다는 것을. 청렴함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고 순간의 이득에 눈이 멀지 않는 어른들이 있어 오늘도 너의 열일곱과 나의 열일곱은 다르다.

“정직한 게 오래가는 거데이. 정직한 게 사람을 남기는 기라.”

“아니, 왜 7,000원을 주는 거지?”

국민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짝꿍의 금색 샤프펜슬이 부러웠던 나는 매번 하굣길에 문방구점에 들러 주인 할머니께 이미 수차례 물어본 금색 샤프펜슬의 가격을 몇 번이나 되묻곤 했다. 몇 번이나 되물어도 주인 할머니는 싫은 내색 없이 7,000원이라고 말해주며 도리어 옆에 있던 알사탕을 하나씩 쥐여 주셨다. 한 달 용돈이 5,000원이었던 나에게 7,000원이란 가격은 너무 부담스러워, 금색 샤프펜슬 옆에 있던 검은색 투박한 샤프펜슬에 한동안 만족하고 살아야 했다.

그러다 설날 연휴 때 할머니가 주신 만 원을 들고 기어코 금색 샤프펜슬을 사기 위해 문방구점으로 향했고, 꼬깃꼬깃하게 접힌 만 원과 금색 샤프펜슬 상자를 드디어 맞바꾸었다. 그리고 거스름돈을 받아 나왔는데, 무심코 손바닥을 펼쳐보니 3,000원이어야 하는 거스름돈이 7,000원이었다. 이미 문방구점 문을 닫고 나왔고 이대로 집으로 향하면 주인 할머니는 모르실 상황이었다. 주인 할머니가 주시던 알사탕을 떠올리면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가야 했지만, 한 달 용돈 5,000원이었던 나에게 그 상황은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었다. 결국 나는 문을 열고 다시 들어가지 못했고, 다시는 주인 할머니가 쥐여 주는 알사탕을 맛보지 못했다.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뀐 이후에 다시 그 문방구점 앞을 지나갔지만, 주인 할머니가 늘 앉아 계시던 쪽을 차마 쳐다보지 못했다. 꽤 오랫동안 마음이 무거웠고, 이 무거움이 바로 양심과 청렴의 무게라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야 알게 되었다.

거스름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한순간에 양심을 저버렸던 여덟 살의 ‘나’와 달리 나의 부모님은 늘 정직을 철칙으로 알고 평생을 살아오셨다. 특히 아버지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직장에서만 근무하셨는데, 그래서인지 주위에 사람들이 참 많으셨다. 그리

고 오랫동안 자재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셔서, 자기네 물건을 써 달라고 부탁하려는 삼촌들이 집으로 자주 찾아왔던 기억이 난다. 삼촌들은 항상 손에 무언가를 들고 오셨는데 아버지는 그것들을 절대 집으로 들인 적이 없었다. 삼촌들의 손에 들린 물건이 '○○제과 종합선물세트'였을 때는 어린 마음에 아버지께 조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대신 아버지는 삼촌들의 손을 이끌고 나가면서 "마. 이런 거 고마 갖고 온나. 갖고 와도 나는 못 받는데이. 집에 느그 아나 갖다 주라. 소주나 한 고뿌 하고 가라"라고 하셨고, 그런 날마다 아버지는 술에 거나하게 취하셔서 웃음 섞인 목소리로 나에게 술주정을 부리셨다.

"마, 내가 가진 건 읊어도 자존심도 읊나. 읊이 살아도 사람이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기라. 니도 똑똑히 들으래이. 정직한 게 오래가는 거데이. 정직한 게 사람을 남기는 기라. 알아듣겠나?"

그땐 아버지의 술주정이 싫다는 마음뿐이었지만, 아버지의 웃음이 바로 정직과 정의의 대가(代價)였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삼촌들의 손에 들려 있던 물건들을 되돌려보내는 아버지를 만류하지 않은 어머니 덕분이란 것도 알게 되었다. 어머니는 없이 사는 살림이었지만 쪼개고 또 쪼개어 정말 알뜰히도 살림을 꾸리셨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는 스승의 날이 될 때마다 담임 선생님 선물로 양말 세 켤레가 가지런히 포장된 선물 박스를 내 손에 들려 보내셨다. 그리고 선물 박스 안에는 늘 흰색 봉투도 함께 있었는데, 그 속엔 장문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물론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지만, 한글을 완전히 깨우친 후에 어머니의 어깨너머로 본 편지에는 아들을 많이 꾸짖어 달라는, 버릇이 없거나 잘못을 했을 때는 따끔하게 혼내 달라는 내용이 있었다. 우리 아들을 잘 봐 달라는 말은 한 줄도 없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삶으로 보여 주셨던 가치대로 나는 정직하고 우직하게 노력을 했고, 다행히 부모님의 바람대로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었다. 그리고 신명 나게 학교생활을 했으며, 아이들 앞에 늘 당당한 선생님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처음으로 담임 교사를 맡았을 때는 정말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제2의 부모가 된 것처럼 생활했는데, 어느 날 한 남학생이 우리 반으로 전학을 왔다.

며칠 후 그 아이의 아버지와 상담을 했는데 상담을 끝내고 나서 보니 그 아버지가 앉았던 자리 옆에 무거운 나무 상자와 흰 봉투가 담긴 종이가방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그 나무 상자가 '○○년산'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위스키 상자라는 것과 그 흰 봉투가 나의 어머니께서 양말 박스 안에 넣어 보내시던 손편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초임 교사로서 처음 맞닥뜨린 상황이 너무나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어릴 적 문방구점에서 있었던 달콤한 유혹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주인 할머니가 주시던 알사탕을 또다시 배반할 수는 없어 아무런 망설임 없이 곧바로 주차장으로 달려 나갔다. 하지만 그 아버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고, 전화상으로만 지루한 실랑이가 계속되었다. 선물을 주고 말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은 그 뜻을 쉽게 굽히지 않는 법이다. 하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의 실랑이 끝에 다음 날 그 아버지께서 다시 학교로 오셨고 그제야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내 뜻을 받아들였다.

다시는 국민학교 앞 문방구점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예전과 달리, 아이들 앞에서 당당한 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너무나 다행이었다. 한편으로는 이 경험을 통해 나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조그마한 것이라도 놓고 갔을 때는 그것을 돌려주는 것이 더 어려우므로, 애당초 빈손으로 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부모님들이 상담을 요청할 때는 갈등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많은 사람에게 개방된 장소에서 이야기를 진행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다.

“마음은 한 아름, 양손은 가볍게!”

아이들을 통해 담임 교사의 의사를 단호하고 분명하게 전달하고 나니, 대부분의 부모님이 나의 방침에 따라 주셨다. 대신에 나는 신학기만 되면 “마음은 한 아름, 양손은 가볍게!”를 수없이 외쳐야만 했다. 그러다가 2016년 9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시작했고 나는 더 이상 “마음은 한 아름, 양손은 가볍게!”를 외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물론 부정청탁 금지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혼란과 상처가 있기도 했다. 모든 교사가 그동안 부정청탁을 받아 왔다는 것을 전제로 한 듯한 느낌이 들어 약간의 상처가 되기도 했고, 아이들이 주는 캔커피 하나, 사탕 하나까지도 자기 검열해야 한다는 점이 너무나 삭막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의 어머니께서 내 손에 들려 보내시던 양말 세 켤레마저도 부정청탁의 허울을 덮어써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결론은 어머니께서 양말 세 켤레에 실어 보낸 마음은 순수한 의미였더라도 상대방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 통념상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선물일지라도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상대방에게는 그 성의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캔커피 정도의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추후 내적 갈등의 상황에 처한다면 상대방은 그 캔커피의 기억을 저버릴 수 없는 것이다. 최소한 교육 현장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선물은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

부정청탁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흐른 지금, 교육 현장은 많은 것이 변화했다. 이제 더 이상 학기 초마다 담임 교사가 “마음은 한 아름, 양손은 가볍게!”를 외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학부모들은 따뜻한 마음만 갖고 학교에 찾아오신다.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굳이 캔커피나 꽃 한 송이가 없더라도,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아이들과 주고받은 편지는 몇 년이 흐르더라도 서랍 속 상자에 고이 보관할 정도로, 글로 전한 마음은 상대방에게 향기로 남는 법이다. 꽃 한 송이에 담긴 향기는 꽃이 시들

면 그만이지만, 글로 전해진 향기는 마음속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는 것이다. 단,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예전에는 화려한 장식이 붙은 편지였다면, 4년 전부터는 흰 바탕의 복사 용지에 더 빼곡하게 마음을 채운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꽤 오랜만에 서랍을 열고 아이들과 주고받은 편지를 하나하나 다시 읽어 보았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이 문득 떠올랐다.

“정직한 게 오래가는 거데이. 정직한 게 사람을 남기는 기라.”

유혹과 갈등 속에서 피어나는 '청렴의 꽃'

과거에 나는 직원 여섯 명을 거느린 조그마한 급식 식자재 업체를 운영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업체를 운영해오며 양심을 지키고 부정(不正)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나름의 소신을 지켰다. 물론 온갖 검은 유혹이 판치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편법을 쓰지 않고 버틴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단순히 의지와 소신만으로는 도저히 견디기 힘든 상황과 맞닥뜨릴 때도 많았다.

식자재 공급 계약을 앞두고 학교 교장이나 교감, 기업의 실무자가 노골적으로 뒷돈과 향응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런 일은 대부분 식자재 공급과 관련된 세부 조율을 모두 마치고 계약서에 사인을 앞둔 상황에서 벌어졌다. 그때마다 '상대가 원하는 대로 뒷돈을 주고 편법을 써서 계약을 따내야 하나' 하는 고민에 빠지곤 했지만, '내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품질 좋은 식자재로 승부하면 알아봐 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검은 거래를 거절했다. 그러면 해당 공급 건은 다른 업체로 넘어가 버리곤 했다.

물론 그들은 그럴듯한 이유를 달아 우리 회사에 퇴짜를 놓았다. 공급 단가가 비싸다거나 식자재 품질이 형편없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들이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다.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계약을 따낸 업체들이 수익을 만회하기 위해 공급 단가를 고의로 높여 부르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식재료를 납품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학교나 기업의 구성원들이 입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속에서 울화가 치밀고 신물이 넘어오곤 했다.

'내가 잘못된 걸까. 역시 뒷돈을 주고서라도 공급 계약을 따냈어야 하는 건가. 나에게는 부양할 가족과 딸린 회사 식구들도 있는데.... 아니, 그래도 그건 아니야. 한 번이 힘들지, 일단 선을 한 번 넘고 나면 결코 예전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거야.'

그나마 우리를 인정해 주는 곳들이 더 많아 간신히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회사는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고 점점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때마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볼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내가 평생 청렴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아내와 자식들을 생각해 마음을 다잡곤 했다. 하지만 몇 년 사이 경쟁 업체가 난립하고 경기마저 안 좋아지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다.

수십 년을 함께 일한 직원들을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만든 것 같아 기분이 참담했다. 모든 것이 다 내 잘못인 만큼 미안한 마음을 담아 퇴직금을 일률적으로 30%씩 더 챙겨 주었다. 여기에 자식 둘이 연달아 시집, 장가를 가는 통에 전세자금과 혼수를 맞춰 주고 나니, 살고 있는 집 한 채를 제외하곤 손에 남는 것이 거의 없었다.

앞으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재취업은 꼭 필요했다. 평소 실용주의자를 자처하며 살아온 나이기에 20년간 사장님 소리를 들으며 지내 왔어도 재취업에 딱히 거부감은 없었다. 나는 뛰어난 손재주를 살려 늦게나마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곧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기기사로 취업하게 되었다. 비록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늦은 나이에라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할 수 있어 보람은 컸다.

그런데 검은 유혹은 이곳에도 존재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작은 금전적 이익을 놓고 편법과 부정(不正)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던 것이다.

하루는 관리사무실로 전화가 걸려왔다. 난방이 되지 않는다고 점검을 요청하는 입주민의 전화였다. 우리는 2인 1조로 근무하는 시스템이었기에 난방 관련 점검 기계들을 이것저것 챙겨 들고 선임 기사와 함께 입주민의 집을 방문했다.

선임 기사는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다.

선임 기사와 함께 난방 관련 장치들을 점검했더니 난방 조절 장치가 고장 나 새로 교체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선임 기사는 입주민에게 “난방 조절 장치가 고장이 났네요. 제품을 구입해서 오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제품 구입비 3만 원만 주시면 됩니다.”라고 말했다.

기전실로 돌아온 나는 선임 기사에게 새 제품은 어디서 사와야 하는 거냐고 물었다. 그러자 선임 기사는 “새 제품은 사지 않아도 돼요. 다른 가정에서 고장 나 거뒀던 중고품을 미리 고쳐 놓은 것이 있으니까요.”라고 말했다. 내가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자

그는 “깨끗이 닦아서 빈 상자에 넣어 가면 새 제품이란 똑같아서 아무도 몰라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기전실 내부에 중고 제품을 쌓아두는 캐비닛을 열고, 그 안에서 미리 수리해놓은 중고 난방 조절 장치를 가방에 챙겨 넣었다. 누가 봐도 감쪽같이 새 제품 같았다.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던 나는 선임 기사를 향해 말했다.

“좀 전에 입주민에게는 제품 구입비가 3만 원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새 제품을 사서 교체해 드려야지요.”

그러자 선임은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서 어떻게 살려고 해요? 입주민들 입장에서 제대로 작동만 하면 되는 거지, 중고로 바꿔 주나 새것을 달아 주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내가 앞으로 김 기사한테도 절반씩은 떼어 줄 테니, 걱정 말아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이리저리 건수가 많아서 은근히 수입이 짹짹하거든.”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서 미루어 짐작하건대 한 달이면 이런저런 건수들로 적어도 20만 원에서 최대 30, 40만 원까지는 생기는 눈치였다. 당시 형편을 생각하면 충분히 욕심나는 돈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것은 입주민을 기만하는 범법 행위였다. 마음을 다잡은 나는 선임 기사에게 힘주어 말했다.

“아무리 소액이라지만 그래도 이건 입주민을 속이는 잘못된 행동이에요. 입주민들이

나는 돈으로 월급을 받는 처지에 그들을 기만하는 일은 차마 못 하겠습니다. 적어도 자랑 같은 조가 되었을 때는 이리저 마십시오. 눈감아 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선임 기사는 나를 노려보더니 쏘아붙였다.

“아이고, 당신처럼 딱 막힌 사람이랑은 나도 일 못 하겠네. 나 혼자 올라가서 교체하고 올 테니까 김 기사는 빠져요!”

선임 기사는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기전실을 빠져나갔고, 얼마 후 혼자 일 처리를 하고 돌아왔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나는 선임 기사의 지시로 관리사무소 내에서 매번 굶은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다. 비교적 간단한 일이나 돈이 되는 일은 선임 기사가 또 다른 기사와 조를 이뤄서 나갔고,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힘이 드는 일은 나만 혼자 출동을 하게 했다. 선임 기사는 2인 1조 근무라는 규정마저 어긴 채 나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나섰다.

관리소장에게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무슨 일인지 선임 기사를 감싸고돌며 나를 배척하는 분위기였다. 나는 졸지에 관리사무소에서 문제아 취급을 받게 되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웃으며 인사를 나누던 사람들이 합심해 나를 따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철저하게 무시당하며 지냈지만, 양심을 팔지 않은 청렴한 선택을 한번도 후회해본 적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관리소장과 직원들이 물품 구입이나 아파트 내외부 공사와 관련해 외부 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일이 부녀회 측의 신고와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관리사무소 측에서 조직적으로 벌였던 부정들이 대거 밝혀지면서 관리소장과 몇몇 직원이 웃을 벗게 되었다.

아파트가 발칵 뒤집히자, 부녀회에서는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전반적인 활동과 관련된 불만 사항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선임 기사의 부정 건도 함께 밝혀지게 되었다. 난방 조절 장치가 고장 나 3만 원을 주고 교체했는데 한 달 만에 또 고장이 나 다시 3만 원을 주고 수리를 받은 입주민이 클레임을 걸었던 것이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부녀회 측에서 입주민을 방문해 난방 조절 장치를 뜯어보았더니, 몇 개월 전에 바꾼 난방 조절 장치의 제조 날짜가 5년 전으로 찍혀 있는 것이 드러났다. 선임 기사가 새 제품을 구입하지 않고 중고품을 고쳐 쓴 후 제품값을 부당하게 받은 일 발각된 것이다.

그 후 부녀회 측에서는 최근 2년 사이에 관리사무소 기사들이 진행한 모든 작업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나를 제외한 다른 기사들이 모두 부정 행위를 행한 것으로 드러나 해고와 함께 법적 절차를 밟게 되었다.

청렴하고 정직하게 살자는 소신을 지킨 덕분에 엄청난 후폭풍에서 한 걸음 벗어날 수 있었지만, 선임 기사의 일을 보면서 어쩐지 마음 한편이 씁쓸하기도 했다.

정직과 청렴의 꽃이 지고 나면 한편에선 반드시 부정부패와 거짓이 고개를 든다. 반칙으로 차지한 이득은 결국 내 힘으로 쌓아 올린 것들까지 함께 무너뜨리고 만다.

검은 유혹의 가치는 청렴함의 가치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당장의 이득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면 나 하나의 행복이 아닌 우리 모두의 행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유혹과 갈등 속에서 피어나는 '청렴의 꽃'. 나의 조그만 의지와 행동 하나가 청렴의 꽃이 만개한 세상을 앞당기는 데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청림의 맛

내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은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의례적으로 '촌지'를 보내는 시절이었다.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담임 선생님에게 우리 귀한 자식 잘 가르쳐 달라는 의미로 '작은 정성'을 보내는 것이다. 여느 영화처럼 선생님이 대놓고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학부모는 자발적으로 이 '작은 정성'을 준비하는 분위기였다.

그리고 매년 스승의 날이 되면 학생들은 각자 집에서 부모님이 준비해 주신 선물을 교탁 위에 진열해 놓고 누구 집에서 어떤 선물을 보내왔는지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스승의 날이 돌아오면 엄마는 여동생과 나를 동네 속옷 가게에 데리고 갔다.

"그 선생님은 키가 엄마보다 더 크더냐?"

"아니 크진 않고 비슷한 것 같아."

"그럼 엄마보다 말랐어, 아니면 살집이 더 있는 편이여?"

"에이, 우리 선생님이 더 날씬하지!"

엄마는 항상 본인 기준으로 선생님의 키가 자기보다 큰지, 작은지, 몸매는 더 말랐는지, 아니면 살집이 더 있는지를 물어봤다. 그러곤 우리 대답으로 사이즈를 가늠해 맞을 법한 내복 두 벌을 사서 포장해 달라고 했다. 네모지고 가벼운 그 선물을 가지고 학교에 가면 교탁 위에는 눈부시게 반짝이는 보석이 가득 박힌 나비 집게 핀, 예쁜 펜던트가 달린 금목걸이, 팔찌, 그리고 세련된 백화점 봉투 따위가 올려져 있었다. 그럼 나는 거의 맨 나중에 나가서 교탁 끄트머리에 내복과 함께 손편지를 끼워 놓고 들어오곤 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어느 날, 엄마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다.

“엄마 나 반장 선거 나가 볼까?”

“반장?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지 않냐. 그러 해봐.”

“근데 반장 되면 반에 햄버거 돌려야 하는데.”

엄마는 의아한 표정으로 반장을 하는데 햄버거를 왜 돌려야 하느냐고 물었다. 나는 반장이 되면 원래 다들 하는 거라고 말했다. 실제로 반장 선거 후보자들의 유세는 물질적 공약이 대부분이었고 그에 따라 반장이 정해지곤 했다. 선거 공약으로 햄버거를 걸었다면 그 선거는 따 놓은 당상이나 마찬가지였다. 그 외에도 반장 엄마들은 학교 행사 때마다 보내야 하는 게 많았다.

“반장 그거 나중에 허라. 공부만 잘하든 되제...”

엄마는 약간 풀이 죽은 말투로 나를 다독였다. 나도 더는 말하지 않았다. 사실 나는 엄마의 대답을 알면서도 물어본 것이었다. 그 뒤로 내가 반장 선거에 출마하는 일은 없었다. 그리고 그해 스승의 날에도 어김없이 내 손에는 내복 한 벌이 들려 있었다.

장녀인 내가 중학교에 입학한 것은 우리 집에 새로운 변화였다. 새로이 교복을 맞추고 시장에서 교칙에 맞는 책가방과 단화도 구입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잘랐다. 하나씩 준비물이 갖춰질 때마다 장사할 때 요긴하게 쓰이는 엄마의 복대는 열렸다 닫히기를 반복했다.

사건은 입학식 후, 반 배정을 마친 이튿날 생겼다. 담임 선생님이 반장 선거를 제안하며 지금까지 반장을 해보지 않은 학생들은 손을 들고 했다. 그리 많지 않은 학생들이 손을 들었고 그중에는 나도 포함돼 있었다. 선생님은 이번 학기 반장을 이 중에서 뽑자고 제안했고 얼떨결에 앞으로 나가 반장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발표했다. 반장 선거에 나가면 어떤 말을 할지 수없이 생각해 봤던 터라 막힘없이 말을 이어 나갔다. 그리고 그 덕분에 반장으로 당선됐다. 학우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엄마한테 말해야 하는 건 둘째 치고 우리 반만 간식이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앞섰다.

그날 저녁 집에서 엄마에겐 별일 아닌 듯 “나 반장 됐어.”라고 말하곤 “그냥 시켜서 하게 됐어. 별거 아냐.”라고 덧붙였다. 이 말의 뜻은 엄마가 괜히 부담 가질 필요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당선되면 뭘 사겠다는 공약은 하지 않았는데 뽑혔다고 한 번 더 강조했고 엄마는 내 말을 듣고 그냥 “알았다.”라고만 했다. 나는 이 말로 엄마가 내 뜻을 이해했다고 생각했다.

얼마 후, 체육대회가 있었다. 앞장서 목이 쉬어라 응원가도 부르며 일 년에 몇 번 없는 수업 없는 날을 만끽하고 다 같이 교실에 모여 종례를 하던 중 담임 선생님께서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 나갔다.

“얼마 전 몇몇 학부모님께서 선생님들에게 봉투를 주셨어요. 체육대회 준비하느라고 생한 학급 선생님들께 드리는 거라고 하셨지만 1학년 담임 선생님들과 회의한 결과 봉투는 돌려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했어요.”

나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적잖이 놀랐다. 학부모가 보내온 ‘작은 정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선생님도 처음이었지만, 이걸 받을 수 없어 돌려주겠다고 한 선생님도 처음이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각자 집에 돌아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려 드

리고 앞으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학교 임직원들은 학부모에게 돈이나 선물은 일절 받지 않고, 모든 학생을 공정하게 대우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부모님께 꼭 말씀드리도록 하세요.”

약간의 웅성거림과 함께 종례를 마쳤고 나는 집으로 돌아가 엄마에게 이 사실을 곧장 얘기했다. 이상하리만큼 가만히 내 말을 듣고 있던 엄마는 항상 차고 다니는 복대 가방 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위에는 빼놓은 엄마 글씨체로 '김인혜 엄마'라고 쓰여 있었다.

“이것이 돌아왔시아. 얼마 넣지도 않았는데....”

나는 두 눈이 커지고 어안이 병병해졌다. 아까 종례 시간에 선생님이 말한 학부모가 우리 엄마였다니. 지금까지 내가 겪은 엄마의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가 학급 반장인 터라 학생회 학부모 모임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실제로 모임에 나가 본 적은 없었고, 거기서 체육대회 날 선생님들 회식비 명목으로 각출해 전달하자는 말이 나와 엄마는 10만 원을 보탤다고 했다. 그 당시 한 달 치 학원비가 8만 원이었던 걸 고려하면 엄마에게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었다.

“그래도 명색이 네가 반장인데 엄마가 뭐라도 해야 안 하나 했제.”

엄마는 내가 반장인 것이 한껏 자랑스러운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렇게 자랑스러워 할 일인가 싶으면서 한편으로 내가 반장 선거에 나간다고 했을 때, '다음에'라고 말하던 엄마의 심정은 어땠을까 상상했다. 나는 선생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엄마에게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다. 교탁 위에 수줍게 내복을 내밀던 그때의 나와는 다르게 한껏 당당한 태도였다. 선생님이 돌려보낸 하얀 봉투와 모든 학생을 공정하게 대우하겠다고 말하는 선생님의 야무진 눈빛이 나를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날 엄마는 저녁상을 차리는 대신 피자를 주문했다. 우리가 사달라고 졸라도 잘 사주지 않던 피자였다. 동생들은 영문도 모른 채 배달되어 온 따끈한 피자를 맛있게도 먹었다. 아빠도 오늘 무슨 날이냐고 물었지만, 엄마와 나는 서로 눈빛만 교환할 뿐이었다. 그날 먹은 피자는 유난히도 따뜻하고 달콤했다.

내가 기억하는 '청렴의 맛'은 '따뜻한 맛'이다. 누군가에겐 사소한 행동이거나 혹은 나 하나의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청렴한 행동은 분명히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관행이니까, 남들도 다 하니까, 혹은 관심이 없어서 묵시하는 우리 일상의 작은 부패들은 누군가에겐 좌절과 상처가 된다. 단언컨대 사소한 청렴, 나 혼자만의 청렴은 존재할 수 없다. 지금까지도 나는 그날 선생님의 총명한 눈빛과 따뜻한 피자 맛을 떠올려본다. 훗날 나도 누군가의 '따뜻한 맛'으로 기억되길 바라며.

우리 동네 지킴이

오늘도 나는 동사무소에 도착한 후 노란색의 덧옷을 입는다. 덧옷의 등에 쓰인 '행복한 서구'와 '우리 동네 지킴이'라는 글자가 창피하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동네 사람들이 나의 행동을 감시하는 것 같아 등이 근질거리고 따갑다. 그래도 나는 좀 덤고 어렵더라도 께를 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 내가 이 옷을 입고 거리를 청소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은 돈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연히 기회를 얻었기에 소중하게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동사무소에서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거리 청소를 시키고 일당을 준다니 같이 신청해 보자고.”

예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신 씨가 내 손을 잡아끌었다. 사실 나는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었다.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껴 쓰면 생활하는 데 큰 지장이 없기에 더 이상 나라에서 주는 혜택에 기대기가 속스럽다. 그러나 신 씨의 생각은 내 생각과 많이 달랐다. 그는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누리 만큼 누리면서도 언제나 정부에 불만이 많다.

“하여간 정부 놈들이란, 없는 사람 도와주려면 돈 좀 듬뿍듬뿍 주든지.... 겨우 죽지 않을 만큼 주면서 생색을 내는 건 최고예요.”

일부의 사람들은 이렇게 신 씨처럼 타올에 젖어 사는 경우가 있다. 스스로 일을 해 생활을 꾸려갈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정부에 얹혀살려는 습성에 젖어 있다. 신 씨의 손에 끌려 동사무소에 도착한 나는 담당자의 설명을 들었다.

“하루 세 시간씩 동네와 근린공원인 남선공원을 청소하는 일인데 그리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신청한 사람이 너무 많아 제비뽑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려운 이웃에게 최저임금의 시급을 주고 동네도 깨끗하게 만들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의 시책이었다. 이런 정부 시책에 신 씨도 나도 뽑혀 일을 하게 되었으니 정말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었다.

“9시부터 12시까지 세 시간만 일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동사무소 앞에 모여 출석 체크를 한 다음 뽀뽀이 흠어져 동네 청소를 시작했다. 처음 며칠은 덧입은 윗옷에 쓰인 ‘우리 동네 지킴이’ 혹은 ‘남선공원 지킴이’라는 글씨가 마음에 걸려 얼굴도 들지 못했다. 그러나 신 씨를 비롯한 남들은 이깟 것이 무슨 창피냐는 듯 휴지를 주우면서도 연신 입은 바쁘게 놀렸다. 때론 불평을 늘어놓기도 하고 수다를 떨며 깔깔거리고 웃기도 했다.

“자식들, 담배꽁초를 어지간히도 버렸네.”

어떤 사람들은 집게로 휴지와 담배꽁초를 주워 비닐봉지에 담으면서 불만을 터뜨렸다. 그 말에 나는 반박의 한마디를 하려다가 이내 목구멍으로 삼키고 말았다.

‘사람들이 담배꽁초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한테 일자리가 생긴 거예요.’

물론 거리에 휴지를 버린다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일은 잘못된 일이다. 그러나 그런 무질서가 있기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던가? 만약 거리가 깨끗했다면 누가 우리를 고용해 일을 시키겠는가? 그러니 불만을 드러내서는 안 될 것이다.

“어이, 이 씨. 좀 쉬면서 천천히 합시다.”

일을 시작한 지 30분도 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먹자골목의 술집 앞 의자에 앉아 쉬며 한편의 수다를 벌이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이 왠지 눈에 거슬렸다. '서구청'이라고 인쇄된 노란 옷을 입은 네댓 명이 청소를 하다 말고 의자에 앉아 잔소리만 하고 있었다. 그러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힐끔 우리를 쳐다보았다. 나는 주민들의 눈이 무서웠다. 그들이 낸 세금으로 우리에게 복지의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던가? 그러니 나는 시민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은 한마디로 부정이고 부패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동료들처럼 자리에 앉지 않고 열심히 주변을 청소했다. 다른 사람들은 집계를 이용해 쓰레기를 주웠지만 나는 장갑을 끼고 손으로 쓰레기를 주웠다. 집계를 이용하면 담배꽂이 같은 작은 쓰레기는 잘 집히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런 나를 보고 모두가 손가락질을 하며 수군거렸다.

“혼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우리는 도대체 뭐가 되는 거야?”

그들은 열심히 일하는 내가 못마땅한 듯 수군거렸다. 그래도 정부에서 주는 돈을 타 먹으려면 돈만큼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던가? 한 시간에 돈은 8,590원씩 타 먹으면서 일은 2,000원어치도 하지 않으면 이게 바로 부정이고 부패인 것이다. 받는 돈보다 더 많은 일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돈을 받는 만큼 일을 하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책임자가 아닌데 그들에게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한 달 남짓 지나니 여름이 다가왔다. 이젠 제법 더위가 몰려왔다. 아침 9시밖에 안 되었건만 이마에서 땀이 줄줄 흘렀다.

“먹자골목과 남선공원 입구에 청소가 미흡하다고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어요. 신경 좀 써서 청소해 주세요.”

조회 시 동사무소 담당자의 지적을 들은 나는 땀을 뻘뻘 흘리며 청소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같이 청소해야 할 동료들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모두가 공원 입구의 그늘진 벤치에 앉아 노닥거리고 있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 불과 몇 분 전에 청소 좀 깨끗이 해달라고 담당자로부터 부탁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한쪽 귀로 듣고 그대로 흘러보낸 것이 분명했다. 그래도 나는 묵묵히 혼자서 청소를 했다. 혼자서 청소를 끝내고 나도 잠깐 숨을 고르려고 그늘에 들었다.

“이 씨, 그렇게 열심히 청소한다고 누가 돈을 더 얹어 주기라도 하는가?”

사람들이 나를 향해 한마디씩 말 화살을 날렸다. 그래도 나는 말 상대하기 싫어 대꾸하지 않았다.

“이 사람아, 비력질 와서 땀 흘리면 삼대가 빌어먹는다잖아.”

누군가의 한마디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게 왜 비력질이야? 엄연히 돈 받고 일하는 건데.... 돈 받고 일하면 열심히 그 값을 해야지.”
내가 버럭 화를 냈다.

“그깟 한 시간에 최저임금인 8,000원을 주는 것도 돈이야?”

시원한 그늘에 앉아 서로 자신의 주장을 펴면서 언성을 높였다. 나는 그런 행동도 싫어 그 자리를 피해 골목을 청소했다. 그들과 언성을 높이며 말싸움을 하다가는 지나가는 주민에게 나쁜 인상을 줄 것 같아서였다. 나는 골목의 담배꽂초를 줍고 있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지금 우리 팀이 하는 행동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이고 우리는 하루 세 시간을 일한다. 한 달을 계산하면 50만 원이 넘는다. 그런데도 우리 팀 사람들은 그까짓 것이라 하며 일을 하는 데 소극적이다.

우리는 지나온 수십 년 세월을 청렴과 결백을 입에 달고 살아왔다. 그 결과 이젠 살 만 하게 되었고 복지 국가의 목전에 다다랐다. 이만큼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직자는 물론 회사원에서 전 국민에 이르기까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벌여야 했다. 그래서 나는 과연 부정과 부패가 무엇인지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다.

공무원들이 나랏돈을 떼먹지 않고 일하는 것만이 청렴과 결백의 전부가 아니다. 민원인에게 트집을 잡아 항응을 받지 않고 일하는 것만이 청렴하고 결백한 것만은 아니다. 그들처럼 돈을 받고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부패이고 부정인 것이다. 우리는 흔히 높은 자리에 앉아 국가 예산을 낭비하거나 남의 돈으로 내 주머니를 채우는 것을 부정과 부패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부정과 부패는 높은 자리에서, 큰돈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주 적은 돈에 연루되어도, 아주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것도 부정과 부패인 것이다. 지금 그들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부정과 부패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노인들이 일을 쉬엄쉬엄하는 것을 가지고 뭘 그리 야박하게 따지느냐?’ 누구는 그런 말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물을 가둔 넓은 저수지도 개미구멍 하나로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 자기 자리에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청렴이요 결백인 것이다.

“이윤재 어르신 한 분만 제외하고 전원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동사무소의 담당자는 나만 빼고 전원을 교체했다. 들리는 말로는 담당자가 우리들이 일하는 모습을 훑쳐봤다고도 하고, 또는 여러 사람에게 돌아가며 혜택을 주기 위해 교체했다고도 했다. 그런가 하면 담당자가 자기 사람을 심어 놓고 여럿을 감시했다고도 했다. 그런 소문이 돌자 어떤 사람은 나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지만 나는 아니

다. 나는 그냥 성실하게 일만 했을 뿐이다. 그렇다고 동료들을 향해 나는 아니라며 손사래를 치지도 않았다. 지나간 일이지만 잘 생각해 보니 주민들의 눈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일을 열심히 하자고 했잖아요.”

동료 중 누군가가 후회의 한마디를 했으나 이미 때는 늦은 것이었다.

이후 나는 새로 뽑힌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일하게 되었으나 그들 역시 일하는 모습이 내 마음에 들지는 않았다. 그래도 나는 께부리지 않고 열심히 청소하며 이런 것이 청렴한 사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